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❶ 본래 쓰레기란 없다

▶유정길 소장은 1986년 수행공동체 정토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불교수행과 사회운동을 해왔다. 에코붓다의 이사로 '생태사상과 교육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제로-빈그릇운동' 등 대안적 환경운동을 전개했다. 평화재단 기획실장, 전국귀농운동본부 부본부장, 아프가니스탄 주재 JTS 카불지원 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자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거룩한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 버려진 천으로 만든 부처님의 옷

부처님을 비롯하여 당시에 수행자들이 입은 옷을 분소의(糞掃衣)라고 한다. 버려진 시체를 덮었던 옷이며, 쓰레기 더미에서 구한 천, 소가 이빨로 씹어서 떨어진 천, 쥐가 파먹어 못 쓰게 된 천 등이 분소의를 만든 옷감이었다. 이러한 옷도 최소한 6년 이상은 입도록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 목록인 바라제목차에 나와 있다. 이러한 정신은 〈아함경〉에서 아난존자에게 왕비가 찾아와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스님들은 가사가 낡아서 입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잘 수선하여 입습니다."
"도저히 수선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행주로 사용합니다."
"행주로 사용하기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걸레로 사용합니다."
"걸레로 사용하기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잘게 잘라서 흙과 섞어서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스님들은 공양물을 참으로 소중히 사용하십니다"라고 감동하면서 함께 정진하는 모든 대중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한국 스님들의 오랜 전통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살림의 전통이 있다. 스님들의 승복은 누더기가 될 정도로 기워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쓰던 바가지가 깨지면 솔뿌리로 꿰매어 사용했고, 종이와 먹물을 아끼려고 붓에 맹물을 찍어 묵판에 글씨 연습을 했으며, 벌레가 밟혀도 죽지 말라고 짚신도 올이 굵은 것을 신고 육환장으로 땅을 치며 산길을 걸어 다니셨다.

또한 사찰의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선운사, 전등사 등을 가보면 굽고 휘어진 나무라도 그대로 기둥으로 사용하여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 또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음새들이 요철(凹凸)로 되어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해체하여 고스란히 다른 곳에 옮겨 재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室性)이 있었다. 습기나 흰개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다른 목재로 짜깁기 하듯이 수리했다. 더욱이 해체 보수 과정에서 나온 목재들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누더기 전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실성과 조립성이 강한 건축물이 수 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 공짜 자연을 쓴 댓가

그러나 오늘날은 가히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사회이다.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소비하는 인간'이다. 사람들의 소비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배달용 포장폐기물은 더욱 넘쳐나고 있다.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게 되어 썩지 않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쌓이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속이 늘어나는 매장이 있다. 주로 1000원에서 5000원이내의 초저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점포도 대형화하면서 1997년 5개에서 10년 만에 전국에 1300개로 점포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성업 중인 '100엔숍'은 주머니가 얇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다이소'를 비롯한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로서는 좋지만, 대체 이윤이 어떻게 남을까 공연한 걱정이 든다. 또 걱정되는 것은 대부분의 상품이 플라스틱 제품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렴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쉽게 버리게 되며, 결국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값이 쌀 수 있을까? 일단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임금이 싼 중국 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인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저가의 물건은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값싼 노동력 덕분이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노동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억압과 비인권적인 노동력 착취가 있다. 나의 편리와 안락의 토대는 이처럼 값싸고 억압적인 노동력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못 쓰게 된 옷으로 만든 분소의**
**헤지고 낡아도 6년 이상 입어와**
**극단적 소비사회인 현재에 경종**
**비연기적 행동들이 세상 병들여**
**좋은 일은 불편… 거룩한 불편함**

### 나는 이익, 타인은 피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과 공기, 석유 등 모든 자연자원을 공짜로 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걸 버리고 처리하는 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식수, 공기, 또는 석유, 가스, 광물 등은 엄밀하게 부지 구입이나 채굴과정에 물, 공기, 석유, 가스 등 원료 그 자체를 만드는 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다. 그 자연을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채굴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폐기하는 데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흙과 자연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이다. 우리는 그것이 복원되거나 재생되는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채취해서 쓰고 있다. 미래세대가 써야할 석탄, 석유, 가스 등은 남겨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언젠가 고갈될 한정된 자원임을 모르고 있을까? 먼 미래의 일,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까?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진 포장지도 엄청 많아졌고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태워지거나 어디론가 멀리 보내 불법으로 폐기된다. 아마 도시와 좀 떨어진 농촌 변두리 어디쯤 있는 매립지이거나 전국에 약 300여 곳이나 되는 불법매립지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 가난한 나라에 돈을 주고 보내져 처리된다. 이들 쓰레기 매립지를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지경이다. 모기와 파리 벌레로 들끓고 악취가 풍기며, 썩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자주 화재가 발생한다.

### 비불교적 비연기적 세계관

환경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부른다. 자신이 행동에 의한 과보를 자신이 받지 않고 외부의 가난한 사람, 약한 생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 오염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강에 방류해버려 결국 강물은 오염되고 수생태계는 파괴되고 식수가 오염된다. 그가 비용을 줄여서 얻은 이익만큼 물고기들은 죽어갔고, 수질이 오염되었고 이를 정화하기 위해 국민세금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 바다 생물을 죽게 했고 이후 미래세대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 정화해야 한다. 결국 줄인 비용은 다른 생명의 목숨과 미래세대들이 지불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화석연료의 편익은 결국 뭇 생명의 죽음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댓가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결국 댓가를 지불한다. 인과응보인 것이며 자업자득인 것이다.

결국 "나와 상관없다"는 비연기적인 어리석은 생각이 원인이다. '남이 가난해지든, 병이 들든, 죽어가든 말든, 바다가 쓰레기로 죽어가든, 지구가 더워지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 '나만 안전하면, 우리 집만, 우리나라만 우리세대만 안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결국 남의 안녕은 나의 안녕과 근본적으로 무관하다는 '분리된 자아'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긴밀히 상관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리석음이다. 결국 생명들과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오염자나 수혜자가 정화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과 정책은 바로 오염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되어야 한다.

### 생태적 가치의 삶이란

3벌의 옷과 1벌의 발우 (三衣一鉢)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스님들의 생활이다. 극단적인 소유이다. 불교적 가치이자 생태적 가치의 삶은 결국 작은 규모로 작게 소비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것이다. 또한 '천천히 사는 것이 아름답다(Slow is beartuful)'의 가치로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하는 것이다. 또한 썩지 않는 것은 생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Rot is Beautiful) 그래서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Share is Beautiful)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법구경〉 '화양품'에는 '벌이 꽃내음과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듯이, 성자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을 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지속가능한 자연이용도 이처럼 꿀벌이 꿀을 따듯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편에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하도록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은 다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불편함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br>·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br>·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br>·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br>·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